HD건설기계

2026년 3분기 경영실적

2026.10



Disclaimer

본 자료는 HD건설기계(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경영실적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로서, 추후 그 내용 중 일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본 자료에 서술된 경영실적의 정확성과 완벽성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 자료작성일 현재의 사실을 기술한 내용에 대해 향후 갱신 관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정보는 이미 알려진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시장 상황, 기타 불명확한 사정 또는 당초 예상하였던 사정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당사 및 당사의 임직원들은 이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 여러분에게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과실 및 기타의 경우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자료는 비영리 목적으로 내용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단, 출처 표시 필수),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이 변경된 자료의 무단 배포 및 복제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2026년 3분기 경영 실적
2. 영업이익 분석
3. 사업부문별 실적 분석
4. 재무상태표
5. Outlook

[별첨]
1. 사업부별 · 지역별 매출액

1. 2026년 3분기 경영 실적

3Q26 실적 매출액 +6% YoY 상승, 영업이익 +24% YoY 증가

- 매출은 발전기용/산업용 엔진 매출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6% 증가
- 영업이익은 매출 성장 속 건설기계 수익성 개선, 견조한 엔진 이익 더해지면서 전년대비 +24% 개선

(단위 : 억원)

구분	3Q25	2Q26	3Q26	QoQ	YoY
매출액	19,717	24,342	20,915	-14.1%	+6.1%
영업이익	1,273	2,489	1,577	-36.6%	+23.9%
영업이익률(%)	6.5%	10.2%	7.5%	-2.7%p	+1.1%p
순금융비용	-178	-143	-148	-	-
외환손익	354	183	-1,460	-	-
세전이익	1,361	2,449	-40	-	-
당기순이익	1,012	1,807	18	-99.0%	-98.2%
지배지분	1,025	1,804	19	-98.9%	-98.1%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 2025년 실적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합병을 가정하여 작성된 수치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내부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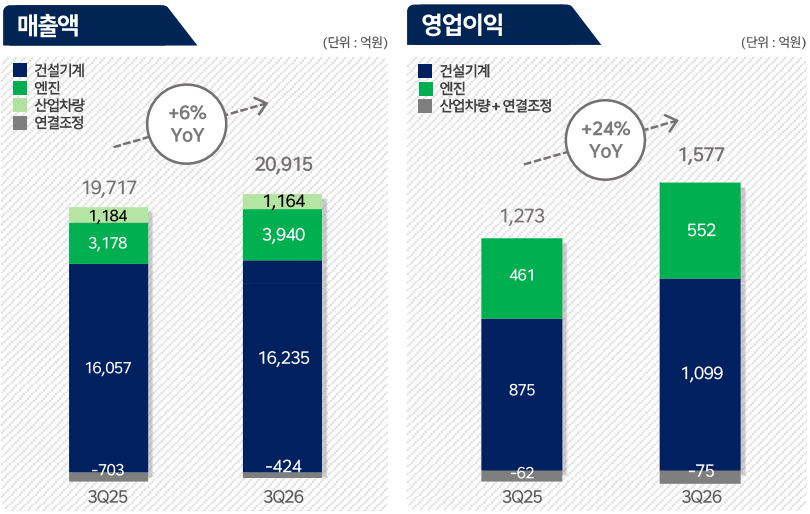
4

HD건설기계

2026년 3분기 경영실적입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6% 성장하여 2조 91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건설기계 부문이 전년대비 소폭 성장하였고, 발전기용과 산업용 엔진이 전사 매출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 성장이 긍정적인 가운데 건설기계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과 견조한 엔진 사업부 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24% 증가한 1,57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이번 분기 환율이 전분기 대비 큰 폭 변동됨에 따라 외화환산손실과 외환차손 등의 영향으로 영업외 손실이 크게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1. 2026년 3분기 경영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사 영업이익률

7.5%

YoY +1.1%p

건설기계

6.8%

YoY +1.3%p

엔진

14.0%

YoY -0.5%p

주. 회사 내부 관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연결조정 항목 별도 표기

5

HD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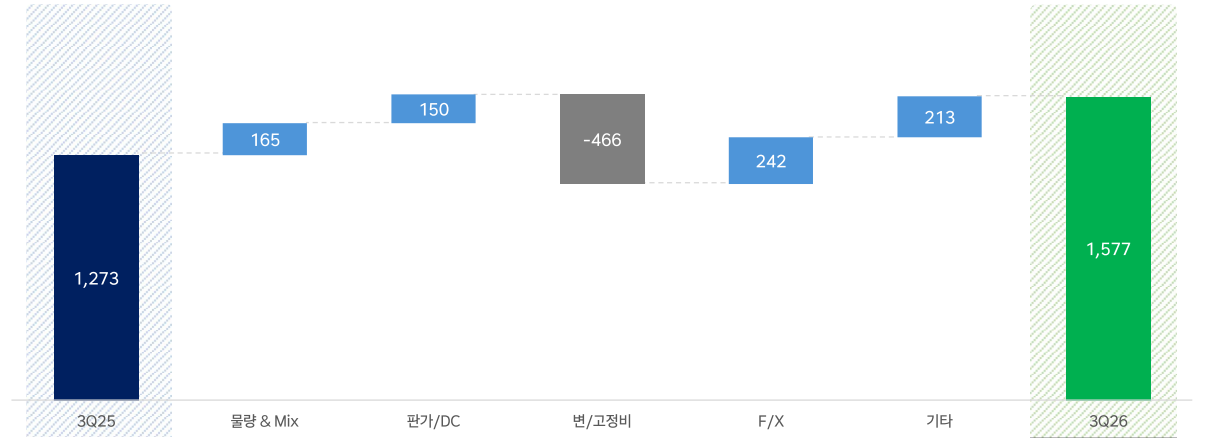
3분기 경영실적을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사 영업이익률이 7.5%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1.1%p 개선되었습니다. 건설기계 사업부의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엔진 사업부도 꾸준히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했습니다.

2. 영업이익 분석

영업이익 변동 요인

• 물량/Mix 개선과 판가 인상, 관세 환급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영업이익 전년대비 +24% 증가
다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료비/물류비 증가와 군산공장 관련 고정비 증가 등은 부담

(단위 : 억원)



주. USD/KRW : 3Q25 1,386→3Q26 1,444, EUR/KRW : 3Q25 1,619→3Q26 1,636

6

HD건설기계

영업이익 분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1,57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양호한 건설기계 수요 회복과 엔진 매출 개선에 따른 물량과 제품 Mix 개선 효과가 +165억원, 판가 인상과 프로모션 비용 축소 효과가 +150억원,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료비 및 물류비 인상 등이 반영된 변동비/고정비 증가 요인이 -466억원, 전년 동기 대비 원화 약세로 인한 달러 및 유로 관련 환율효과가 +242억원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항목에 반영된 일회성 요인 중 특이사항은 미국 관세 위헌 판결로 환급 받은 건설기계 관세 환급금 약 +277억원(현대 +203억원, 디벨론 +74억원)이 있었으며, 그 외 일부 충당금 추가 설정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3. 사업부문별 실적 분석 - 건설기계

건설기계

지역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3Q25	3Q26	YoY
건설기계 매출액		16,057	16,235	+1.1%
건설기계 제품		14,430	14,473	+0.3%
America	북미	1,913	2,252	+17.7%
	중남미	1,746	2,214	+26.8%
EMEA	유럽	2,862	2,724	-4.8%
	ME/AF	2,809	2,130	-24.2%
APAC/CIS	한국	1,544	1,604	+3.9%
	중국	1,237	990	-20.0%
	인도	802	1,015	+26.6%
	SEA/CIS/OC	1,132	1,474	+30.2%
기타		383	69	-82.1%
건설기계 부품		1,627	1,762	+8.3%
건설기계 영업이익		875	1,099	+25.7%
(%)		5.4%	6.8%	+1.3%p

매출액 : 견조한 글로벌 장비 수요

- 중동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ME/AF 부진했으나, 그 외 지역의 수요 회복 흐름 지속
- 특히, 인프라 및 광산 투자 관련 수요 이어지면서 중대형 중심의 판매 지속도 긍정적
- 안정적 부품 매출 확보 전략 추진하면서 수익성 높은 매출 기반 확대

영업이익 : 수익성 개선 긍정적

- 판가 인상과 프로모션 비용 축소, 관세 환급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대비 증가

7

HD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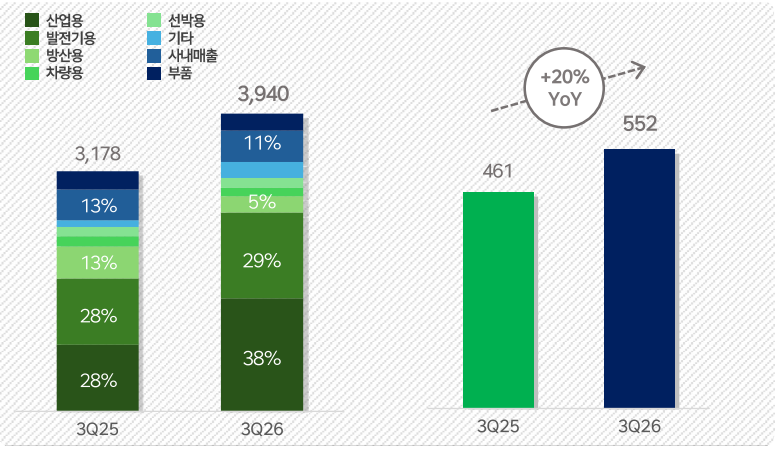
건설기계 사업부 실적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제품과 부품 매출은 전년대비 +1% 성장한 1조 6,235억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1,099억원, 영업이익률은 6.8%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신흥 중남미와 APAC/CIS 지역 등에서 인프라 투자 및 자원 개발 관련 광산 수요 증가 추세가 이어졌고, 생각보다 견조하게 유지된 북미 비주택 건설 수요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인도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들에 힘입어 시장 환경이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도 양호한 시장 수요 속 점유율 확대가 지속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였고, 중국도 내수 시장이 여전히 소형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매출 기여도가 낮아졌습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현재 상황으로 판단할 때 다음 분기에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정상화 시점이 오면 중동과 아프리카 양 지역 모두 빠른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사업부의 수익성이 전년대비 개선되었는데, 이는 주로 판가 인상과 북미 관세 환급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매출의 추가 상승을 위해 지역별 맞춤 전략을 빠르게 실행하고, 수익성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한 부품 매출 기반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3. 사업부문별 실적 분석 - 엔진

엔진

용도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위 : 억원)



매출액 : 발전기 엔진 매출 확대

- 매출은 전력 수요 확대에 따른 발전기용 엔진 성장과 글로벌 건설기계 수요 회복 지속에 따른 산업용 엔진 매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

영업이익 : 꾸준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은 군산공장 관련 비용 증가에도 불구, 제품 Mix 개선에 힘입어 전년대비 +20% 증가
- 향후 대형 전자식/가스 발전기 엔진 매출 성장과 시너지 창출 가속화 등 중장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빠르게 확대 전망

8

HD건설기계

엔진 사업부 실적입니다.
매출은 주요 제품군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4% 성장한 3,94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제품별로 보면, 건설기계, 농기계 등 일반 산업용 엔진의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발전기용 엔진 매출도 성장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군산공장 관련 비용 증가(약 -63억원, 인원 증가 및 운영비용 등 군산공장 관련 추가 고정비)에도 불구하고, 제품 Mix 개선되면서 전년대비 +20% 증가한 55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발전기용 엔진 매출의 경우, 이번 3분기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 공시를 통해 데이터센터향 가스 엔진 롱블럭 수주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으며, 이 외에도 여러 다양한 논의들이 고객사들과 진행되고 있어 진척사항이 있다면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4. 재무상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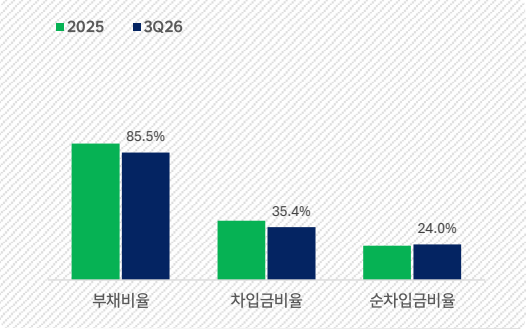
요약 재무상태

(단위 : 억원)

구분	2025	1Q26	2Q26	3Q26
자산총계	88,389	92,971	96,153	91,117
현금성자산	7,683	7,347	7,679	5,618
유동자산	49,476	53,617	56,217	52,020
비유동자산	38,913	39,353	39,935	39,097
부채총계	42,203	44,673	45,816	41,995
차입금	18,368	17,420	17,052	17,387
순차입금	10,686	10,073	9,373	11,768
자본총계	46,185	48,298	50,336	49,121
부채비율	91.4%	92.5%	91.0%	85.5%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 2025년 말 요약 재무상태표는 투자자 편의를 위해 합병을 가정하여 작성된 수치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내부 자료 기준

주요 재무지표 분석



- 자본 확대 및 부채 축소로 부채비율, 차입금비율 전년말 대비 각각 5.9%p, 4.4%p 개선
-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과 주주 가치 제고 정책 수준을 감안하여 꾸준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 지속할 예정

9

HD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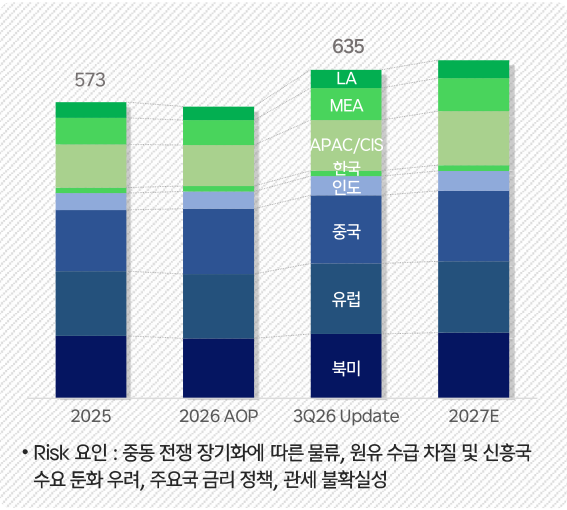
재무구조입니다.
3분기 말 이익 누적에 따른 자본 확대와 부채 축소로 부채비율은 85.5%를 기록해 전년말 대비 5.9%p 개선되었고, 차입금비율도 35.4%로 4.4%p 개선됐습니다.
참고로 전년말 수치는 합병을 가정해 작성한 내부 자료 기준이며, 당사는 앞으로도 견고한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Outlook – 건설기계

글로벌 시장 전망

26년 시장 전망

(판매대수 기준, 천대)



• Risk 요인 :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원유 수급 차질 및 신흥국 수요 둔화 우려, 주요국 금리 정책, 관세 불확실성

북미, 유럽

- 북미 :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 불구, 데이터센터 투자 및 렌탈 수요 확대에 힘입어 당초 시장 전망 상회
- 유럽 : 렌탈, 교체 수요 중심으로 전년 대비 성장 지속, 주택 착공 부진은 제약 요인

APAC/CIS, MEA, LA

- APAC/CIS : 인프라 투자 및 광산 수요 확대로 시장 성장
- MEA :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및 광산 개발 수요는 견조하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급 차질로 하반기 불확실성 존재
- LA : 지역별 정치, 경제 불확실성 불구, 광산 및 인프라 개발 확대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세 기록

인도, 중국, 한국

- 인도 :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견조한 성장 지속
- 중국 : 인프라 투자 확대, 교체 수요로 시장 회복 중이나 로컬업체 중심 가격 경쟁 심화
- 한국 : 건설 경기 부진에도 노후 장비 교체 수요로 완만한 성장

10

HD건설기계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건설기계 시장의 하반기 및 '27년 전망과 당사 지역별 매출 현황 및 향후 전략에 대해 업데이트 드리고자 합니다.

10페이지 건설기계 지역별로,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건설 장비 수요 측면에서 전년 57만대 수준을 기록했던 시장은 올해 63만대 수준으로 +11%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연초 사업계획 당시 예상했던 상황 및 전분기 추정보다 긍정적이며,
내년 시장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 드리기에는 이른 단계이나, 대부분의 지역들이 추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미는 고금리로 인한 주거용 시장이 다소 부진하고,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하나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온쇼어링, 렌탈 수요 확대되면서 당초 시장 전망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은 렌탈 시장 중심으로 성장하는 모습이었고,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의 회복세가 긍정적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으로 주택 착공 부진한 상황이며, 프랑스 재정 불안 등의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Bottom-out 트렌드가 유효한 상황에서 다소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나, 시장의 회복 추세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PAC/CIS, 중남미의 경우, 중남미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우려 사항이나, 광산과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관련 수요가 시장 성장을 견인해왔고, 향후에도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중동 지역의 복구 수요나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및 광산 관련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나, 중동 물류, 아프리카 디젤유 수급 등이 제약으로 작용하면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4분기까지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물류 정상화 시점에 빠른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건설 관련 정부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서 장비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국은 인프라 투자 확대와 교체 수요로 내수 시장의 성장세가 꾸준히 관찰되나, 여전히 소형 장비 중심의 성장이며 로컬 업체 중심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제품과 영업전략 등 대응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은 건설과 주택 관련 회복세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장비 교체 수요에 따른 신차 구매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여 완만한 성장을 기록 중입니다.

Risk 요인으로는 이미 직면하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재료비 및 물류비 인상, 물류 관련 차질들이 부정적이며, 원유 수급과 관련 가동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한 신흥국들의 추가 수요 둔화 우려도 존재합니다.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시장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추가로 관찰해야 합니다.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기회 요인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5. Outlook – 건설기계

건설기계 지역별 실적 및 하반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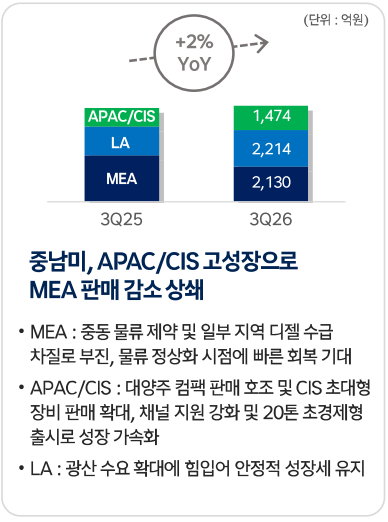
NA/EU



트럭 판매 확대와 주력 제품군 신제품 출시로 지속 성장 추진

- 북미 : 차세대 신모델 및 트럭 중심 판매 확대와 재고 건전화로 성장과 수익성 동반 개선
- 유럽 : 주택시장 부진 및 구모델 판매 감소로 성장 다소 제한되었으나, 향후 차세대 라인업 확대와 14T 굴착기/휠로더 경쟁력 강화 등 신제품 중심 성장 전환 전망

MEA / LA /APAC/CIS



중남미, APAC/CIS 고성장으로 MEA 판매 감소 상쇄

- MEA : 중동 물류 제약 및 일부 지역 디젤 수급 차질로 부진, 물류 정상화 시점에 빠른 회복 기대
- APAC/CIS : 대양주 컴팩 판매 호조 및 CIS 초대형 장비 판매 확대, 채널 지원 강화 및 20톤 초경제형 출시로 성장 가속화
- LA : 광산 수요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세 유지

India/China/Korea



인도 고성장 지속, 한국 성장세 유지, 중국은 수익성 중심 회복 추진

- 인도 :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에 MEX/ 휠로더 판매 확대가 더해져 고성장 지속
- 중국 : 가격 경쟁 심화와 수출 물류 차질로 성장 둔화, 원가개선 모델과 해외시공 물량 공략으로 수익성 중심 운영 기조 유지
- 한국 : 6/15톤 주력기종 및 차세대 신모델 판매 확대로 실적 성장, 점유율 확대 기조 지속

11

HD건설기계

11페이지는 당사 건설기계 사업부의 지역별 실적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수요가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이 올해 내내 나타났고, 내년에도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 속도는 다소 느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맞춤형 제품 전략과 채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올해처럼 시장을 Out-perform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북미와 유럽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북미에서는 차세대 신모델 성공적으로 출시된 가운데, 트럭 중심의 판매 확대와 재고 건전화 흐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유럽은 주택시장 부진과 구 모델 판매 감소로 이번 분기 성장이 다소 제한되었으나, 향후 차세대 신모델 라인업 확대와 14톤 굴착기/휠로더 경쟁력 강화 등 신제품 중심의 성장을 통해 다시 판매를 확대 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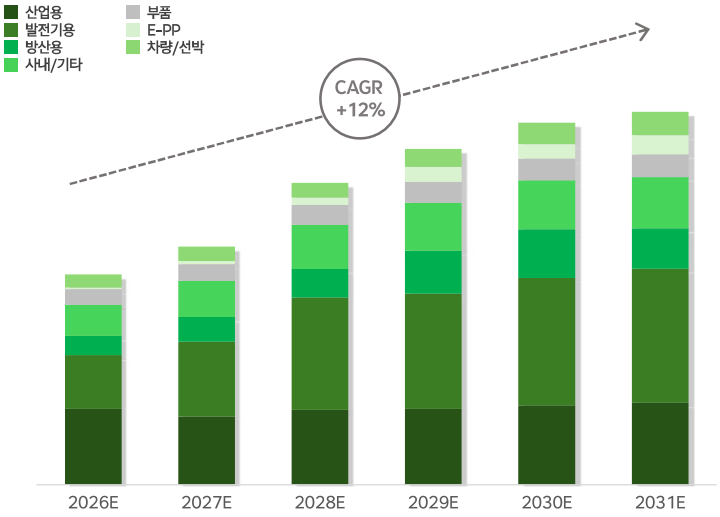
이번 3분기는 중남미와 APAC/CIS 지역의 고성장이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부진을 만회한 분기 였습니다. APAC/CIS 지역에서는 대양주 컴팩 판매 호조와 CIS 지역 초대형 장비 판매 확대가 긍정적이었으며, 향후에도 20톤 초경제형 모델 출시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성장을 가속화 할 계획입니다. 중남미 지역은 금광 프로젝트, 산유국 등 자원국 호조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당사에서는 인도산 초경제형 장비, 중국산 휠로더 등 경제형 라인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판매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당사의 미니굴착기/휠로더 판매 확대 전략이 더해지면서 높은 성장을 지속 중입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의 경쟁 심화가 우려 사항이나, 중국산 원가 개선 모델과 해외 시공 물량 공략을 통해 매출을 방어하고 수익성 중심의 운영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안정적인 시장 수요 유지되는 가운데, 6톤/15톤 주력 기종 및 차세대 신모델 판매 확대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 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3분기까지는 주요 시장의 견조한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다만 4분기에는 환율 환경 변화와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공급 제약 등 대외 불확실성의 영향이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성장의 속도에는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역별 판매 확대와 제품 Mix 개선, 채널 경쟁력 강화를 통해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단기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내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판매 기반과 수익성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 Outlook – 엔진

중장기 매출 전망



성장 동력

- **발전기용 엔진** : 글로벌 전력 수요 확대
- **인천공장 대형 엔진 증설**
- **군산 공장 신설** : 초대형발전용/방산/EPP
- **산업용 엔진** : 북미 진입 확대
- **미래 파워트레인** : 전동화 & 수소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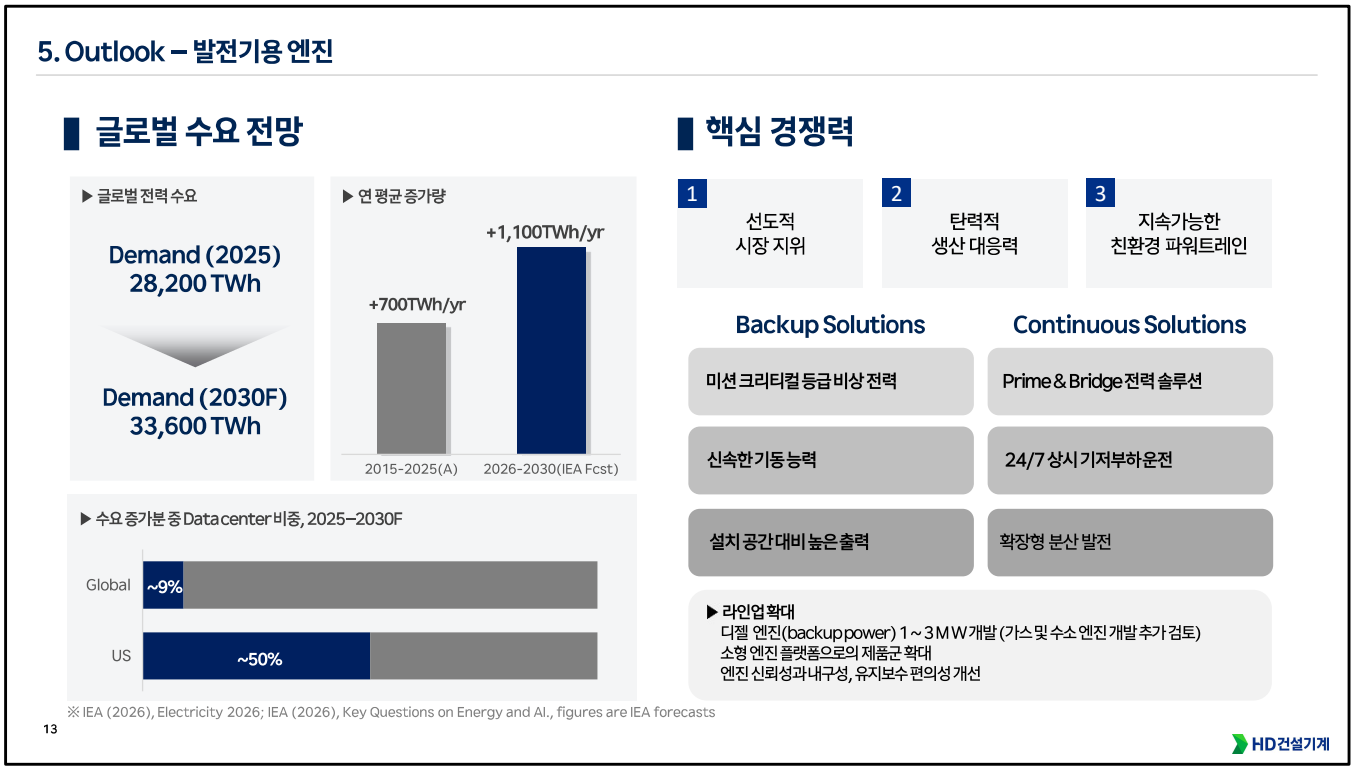
HD건설기계

26년 3분기 엔진 경영 실적은 이미 앞서 설명되었으며, 4분기에는 건설기계 시장과 마찬가지로 엔진 부문의 경우에도 일부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3분기까지의 실적과 같이 발전·산업용 엔진의 매출 성장을 기반으로 이러한 영향을 상쇄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에서 엔진 사업부의 중장기 매출 전망과 성장 동력, 이를 위한 생산 역량 강화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연초 사업계획 당시 2030년 엔진 사업부 매출 목표를 2.5조원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전력 수요 확대에 따른 발전기용 엔진 매출 추가 성장 등을 반영하여 금년 이후 연평균 12% 이상의 성장이 반영된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대비해서 약 2배 수준의 목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대 방안으로 군산에 생산 공장을 신설하였고, 지난 분기 인천 공장의 발전기용 엔진 생산능력 증대를 발표하였습니다.
군산 공장은 8월 말 E-Powerpack 양산을 시작으로 10월 말 준공식을 진행하고, 조만간 방산 엔진의 양산이 시작 될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는 초대형 발전기용 엔진의 양산이 시작 됩니다. 또한, 군산 초대형 엔진 생산과는 별개로 인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형엔진에 대해서도 대형 가스 엔진을 중심으로 생산 역량 증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상, 내년 하반기부터 증대된 캐파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생산 역량 강화 활동들은 향후 발전기용 엔진 매출의 구조적 성장에 주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방산과 발전기용 엔진은 향후 엔진 사업부의 매출 성장을 견인해나갈 제품군이며, 높은 수익성을 보이기에, 매출과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서는 늘어나는 글로벌 전력수요와 그 안에서 당사 발전기용 엔진의 강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고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요의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IEA에서 최근에 발표한 글로벌 전력 수요 전망입니다. IEA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전력 수요는 2025년 28,200TWh에서 2030년 33,600T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평균 증가량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700TWh였는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약 1,100TWh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거 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했던 보고서에서의 표현을 인용하면 매년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 이상의 수요가 생기는 것으로 전력 수요 증가 속도가 지난 10년 보다 뚜렷하게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가분 가운데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기준 약 9%, 미국은 약 50%입니다. 미국에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의 절반 가량이 데이터센터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력 공급이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은 전력 부족이 심하고 그리드 연결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스터빈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발전 수요는 중속 엔진으로, 다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소형 엔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입지도 소규모, 분산형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사의 핵심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백업 솔루션과 상시 발전 솔루션 모두를 대응할 수 있는 디젤과 가스 엔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업 솔루션은 데이터센터처럼 전력 공급이 끊겨서는 안 되는 미션크리티컬 등급 시설의 비상 전력으로, 빠른 기동 능력과 설치 공간 대비 높은 출력이 요구됩니다.
상시 발전 솔루션의 경우, 주전력과 브릿지 전력으로 쓰이며, 24시간 기저부하 운전과 확장형 분산 발전에 대응 가능합니다.

당사의 핵심 경쟁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도적 시장 지위입니다. 당사의 22L 가스엔진은 미국 시장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이력을 바탕으로 장기 공급계약을 확보하였고, 추가적인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탄력적 생산 대응력입니다. 수요 증가에 맞춰 인천공장과 군산공장에서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파워트레인입니다. 발전기용 디젤 엔진을 가스 엔진으로 개발하거나, 수소 엔진으로도 개발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친환경 트렌드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라인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생산이 예정된 비상 발전용 1~3MW급 디젤 엔진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당 엔진을 기반으로 가스 및 수소 엔진 개발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 엔진 플랫폼으로 제품군을 넓히고, 엔진의 신뢰성과 내구성, 유지보수 편의성을 계속 개선하여 성장하는 수요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HD건설기계



[참고] 사업부별 · 지역별 매출액

(단위 : 억원)

구분		1Q25	2Q25	3Q25	4Q25	2025	1Q26	2Q26	3Q26	YoY
매출액		18,879	20,588	19,717	20,085	79,269	23,049	24,342	20,915	+6.1%
건설기계 제품		13,400	14,729	14,430	14,746	57,305	17,496	18,234	14,473	+0.3%
America	북미	1,473	1,875	1,913	1,834	7,096	1,855	2,006	2,252	+17.7%
	중남미	1,310	1,600	1,746	1,636	6,293	1,917	2,078	2,214	+26.8%
EMEA	유럽	1,768	2,503	2,862	2,787	9,921	2,812	3,160	2,724	-4.8%
	ME/AF	1,971	2,748	2,809	3,047	10,575	3,313	4,161	2,130	-24.2%
APAC/CIS	한국	2,446	1,730	1,544	1,032	6,753	2,854	2,163	1,604	+3.9%
	중국	1,450	1,527	1,237	1,895	6,109	1,696	1,741	990	-20.0%
	인도	1,460	1,009	802	1,108	4,379	1,570	1,232	1,015	+26.6%
	SEA/CIS/OC	1,350	1,411	1,132	1,067	4,960	1,333	1,659	1,474	+30.2%
기타		173	324	383	339	1,220	145	33	69	-82.1%
건설기계 부품		1,794	1,813	1,627	1,609	6,843	1,787	1,949	1,762	+8.3%
엔진		3,049	3,690	3,178	3,346	13,264	3,361	3,861	3,940	+24.0%
산업차량		1,189	1,147	1,184	1,131	4,652	974	1,032	1,164	-1.7%
연결 조정		-553	-791	-703	-748	-2,795	-569	-734	-424	-

주. 회사 내부 관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엔진사업부 매출액은 사내 매출 제거 등 연결조정 반영 전 수치

HD건설기계

[Q&A] 2026 3Q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건설기계

Q. 하반기 실적 전망?

- 통상적인 상고하저 계절성 및 환율과 중동 리스크 존재함.
  다만, 건전한 재고 현황 속 지역별/제품별 프로모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

Q. 건설기계 업황 전망?

- 코로나 시기 급증한 수요 이후 교체 주기 도래. 또한 선진시장의 데이터센터 및 전력 인프라 수요와 신흥시장 자원 부국 수요가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Q. 중동,아프리카 시장 현황과 전망?

- 중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물류 차질로 출하 감소했으나 현지 수요와 수익성 모두 양호. 향후, 리스크 해소 시 물량 회복 기대.
- 아프리카는 자원 가격 강세가 여전히 수요에 긍정적이며, 일시적인 연료 수급 문제로 둔화되었던 리테일 판매 회복 중. 신규 딜러 확보 등 커버리지 확대 노력 지속되면서 향후 매출 성장 기반 마련

엔진

Q. 엔진 사업의 수익성 전망?

- 계절성과 환율 등은 부담 요인이나, 북미향 가스발전엔진 등 고수익 제품 판매 확대로 4분기에도 양호한 수익성 전망

Q. 발전용 엔진의 시장 전망?

- 북미 주요 고객사들이 Oil&Gas에서 데이터센터 영역으로 사업 확장하고 있어,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중장기 전망 긍정적
- 2Q에 발표한 바와 같이 대형 가스엔진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향후 추가 매출 성장 기회 포착 가능

Q. 방산 엔진의 매출 전망?

- 3분기 일시적 매출 지연 발생했으나 4분기 정상화 전망,
  10월부터 군산 공장 설비 가동을 시작했으며,안정적인 물량 확보하고 있음

공통

Q. 4분기 및 2027년 전망?

-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건설기계는 교체 수요와 인프라·자원 수요 기반 업사이클, 엔진도 고수익 발전용 매출 기여도 확대되며 수익성 방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Q. 3분기 당기순이익 축소 배경?

- 환율 급락으로 인한 외환손실 확대. 환헷지로 변동성을 일부 완화하고 있으나, 원화 강세 시 단기적인 영향은 불가피